

포천도시공사 장애인콜택시 차량 합동 안전점검

윤 김정중 기자 | 승인 2022.08.25 11:33



[매일일보 김정중 기자]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는 24일 (주)창림모아츠와 장애인콜택시 차량의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차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차량 점검반을 편성하고 (주)창림모아츠와 운용 차량 23대에 대해 이동정비차를 활용한 점검·정비를 진행했다.

합동 안전 점검은 차량의 점검·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하고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공사는 콜택시 점검뿐 아니라 운전원을 대상으로 비상작동법과 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이상록 도시공사 사장은 “주기적인 점검은 큰 고장·사고를 사전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 점검과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